

주간 서성수 고난이도 3

독해력 키우기- 모든 문단에 적용

1) 맥락적 독해

① 문장을 읽을 때 결론에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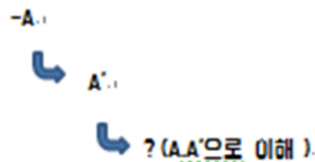
EX/ 성수는 마르크스의 역사학을 비판해- 마르크스 사상에 대한 비판이 중요

EX/ 광자가 입사될 때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광자는 입자에 변화를 야기한다. 운동량을 가지고 있는 광자가 입사됨으로써 입자의 운동량에도 변화를 만드는 것이다.- 광자의 입사, 광자의 에너지, 광자의 운동량, 입자의 운동량 변화가 중요하며 광자의 에너지와 운동량을 연결해서 이해하자

② 문단 안에서 집중한 결론을 연결해 이해한다

- 문장은 문단의 주제를 설명하는 하나의 조각이다. 주제라는 완전한 그림을 보기 위해서는 이 문장의 결론들을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마치 영어의 패러프레이징처럼 글 전체의 흐름에 맞춰 이해되지 않는 용어, 원래 알고 있지만 글의 내용과는 맞지 않는 내용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

- 아예 모르는 말의 처리



- 원래 알지만 이상하게 느껴지는 말의 처리



EX/ 식민자가 피식민자를 본국에 맞게 교화하려 하거나 거꾸로 피식민자가 식민자에게 자발적으로 동화되려 할 때, 피식민자는 식민자의 문화, 언어 등을 모방하게 된다. 그러나 아무리 피식민자가 식민자를 모방하려 해도 그 모방은 완전히 똑같은 복제가 되지는 못한다. 그것은 피식민자의 완전한 동화를 두려워한 식민자가 본국의 문화와 언어 등을 불완전하게 전달하기 때문이기도 하

지만, 둘이 놓인 맥락(역사, 전통, 언어 등)이 다르기 때 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피식민자의 모방은 거의 같지만 똑같지는 않은 '흉내 내기'가 될 뿐이다. /모방 과정에서 의 차이는 피식민자의 의도 때문에 발생하기도 한다. 피 식민자는 식민자의 문화와 담론을 모방하면서도 그것을 비틀어 조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차이를 발생시키는데, 이를 '전유'라 한다.

③역접과 전환의 연결사 앞에서 이러한 연결을 끊기

- 다만 이러한 연결은 특정한 연결사 앞에서는 멈춰주어야 한다

- 대표적으로 역접의 연결사

: 그러나, 하지만, 반면, 달리, 그렇다면

- 또 전환의 연결사

: 그런데, 그렇다면, 다음으로, 한편

- 이외의 연결사 대표적 열거 예시 인과 첨가 등의 연결사는 짝짝 연결하면서 읽기

독해법 정리하기- 모든 글에 적용

1) 첫 문단 독해

① 세부 정보에 집중한 독해

- 첫 문단은 집중력 있게 읽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세부 정보에 집중해 읽어야 한다.

- 정의 비교대조 상관 관계 표기/ 복잡한 과정은 그림/ 식은 적어두기(세부 정보의 3가지 정복법)

<정의>

- 인, 란, 이란, 정의된다. (은/는)

- 정의라고 느껴지면 별표치고 기억하자

<비교 대조>

- 반면, 비해, 달리, 만, 구별된다

- 비교 대조라고 느껴지면 기준점에 세모치고 X&Y표시를 해준다

바른 국어 다른 결과

주간 서성수 고난이도3

<상관관계>

- A가 올라가면 B가 올라간다/ 떨어진다. $A=B+C$, $A=B/C$ 같은 수식

- 상관 관계라고 느껴지면 위아래 화살표를 통해 개념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② 6패턴을 활용해 뒤 문단을 예측하고 집중

- 첫 문단은 개념을 제시하지만 이를 충분히 구체화하지 못한다. 첫 문단의 부족한 설명은 뒤 문단에서 충분히 채워지며 여기서 문제가 나온다

- 중요한 것은 부족한 첫 문단과 이를 채워주는 뒤 문단 사이에는 정해진 6가지의 구조가 있다는 것이다

- 따라서 첫 문단을 읽고! 이를 정해진 6패턴으로 분석한 뒤에! 뒤 문단의 내용을 예측해야 한다! 그리고 이 내용이 실제 등장하면 집중해서 문제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미리 파악해야 한다.

<6패턴- 부록 프린트 정리>

A-A'(형용사 개념어가 등장하면 구체화하기/ 기본/ 결합의 바탕 즉 A' 설명하면서 해결책도 보여주고 질문에 대한 답도 하고 과정과 원리를 보여주고 반박도 하고 시간의 흐름도 보여준다/ 개념어 여러 개면 각각 구체화)

문제- 해결(문제가 제시되었다면 그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이 제시된다/ 해결책에 앞서 핵심 개념에 대한 구체화가 먼저 서술된다)

Q-A (질문이 제시 되었으면 그에 대한 답이 구체화된다 / 답을 제시하기에 앞서 핵심 개념에 대한 설명이 먼저 제시된다)

과학적 현상- 과정& 원리 (과학적 현상이 제시되었다면 그에 대한 과정과 원리가 제시된다/ 과정 원리에 앞서 다양한 개념에 대한 구체화가 먼저 서술된다)

통념-박박(통념이 제시되었으면 그에 대한 반박이 제시된다/ 반박이 제시되기 앞서 핵심 개념에 대한 구체화가 먼저 서술된다/ 통념의 일부가 반박된다)

시간의 흐름(구체적 시간이 제시되었다면 시간이 변화하면서 대상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제시된다/ 개념 구체화 먼저)

③ Q-A

첫/ 질문 | 첫/ 답

? | A

- 질문과 답의 구조는 첫 문단에서 어떤 물음이 첫 문단에 등장하고 끝났다면 뒤에서는 이에 대한 답과 답이 나오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것.

- 이 구조는 주로 A-A'의 구조와 결합

EX1/ 재현적 회화란 사물의 외관을 실제 대상과 닮게 묘사하여 보는 이가 그림을 보고 그것이 어떤 대상을 그린 것인지 알아 볼 수 있는 그림을 말한다. 음악은 어떨까? 회화가 재현적이 되기 위한 조건들을 음악도 가져야 재현적 음악이 될 수 있다면, 본질적으로 추상적인 모든 음악은 결코 대상을 재현할 수 없다고 해야 하는가?

- 먼저 회화의 재현적 조건들부터 설명

- 이후 음악의 재현적 조건들을 설명

- 이러한 설명을 통해 음악도 재현적일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제시

EX2/ 기술이 급속하게 발달함에 따라 인간의 삶은 더욱 여유롭고 의미 있는 것으로 될 것인가. 아니면 더욱 바쁘고 의미 없는 것으로 전락할 것인가? '사색적 삶'과 '활동적 삶'을 대비하여 사회 변화를 이해하는 방식은 이런 물음의 답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

- 먼저 사색적 삶과 활동적 삶이 무엇인지 구체화

- 이후 이것들의 대비를 통해 사회의 변화, 기술의 발전이 급격한 사회 등을 구체화

- 이러한 설명을 통해 삶이 의미 있는 삶으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바쁘고 의미 없는 삶으로 전락할 것인지에 대한 답 제시

주간 서성수 고난이도3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조선 초기의 유학자들은 '이단을 물리친다'는 입장에서 도가 사상의 입지를 허용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한 부정적 입장이 여전한 가운데, 조선 중기에 접어들어 「노자(老子)」와 「장자(莊子)」에 대한 주석서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POINT1 첫 문단 독해〉

1) 개념 정리

명시적 내용 없음(쉽게 보이는 정의, 비교 대조, 상관 관계X)

2) 첫 문단 이해

'이단의 물리침'

'도가 사상의 입지를 허용하지 않음'

'부정적 입장이 여전한 가운데 노자와 장자에 대한 주석서의 등장'

이 주석서는 기본적으로 비판적 입장에서 출발 할 것

3) 예측 하기

사용된 구조: A-A'/시간의 흐름

우선 노자와 장자에 대한 새로운 주석서가 등장했다고 이야기 했지만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또한 조선 초기라는 구체적인 시대적 상황을 제시하고 이때 유학자들이 가지고 있던 도가 사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제시했지만 그 다음 시대나 이전 시대의 도가 사상에 대한 입장은 없다.

따라서 뒤에서는 노자와 장자에 대한 새로운 주석서가 무엇이고 그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설명은 시대적 흐름이나 배경과 연결될 것이다

노자와 장자에 대한 새로운 주석서

- 새로운 주석서의 내용을 구체화
- 비판적 입장의 변화나 유지에 대한 구체화
- 시대적 변화에 따른 내용의 변화 구체화
- 조선 후기, 근대 등 다른 시기에 이 내용이 어떻게 계승되는지도 설명 가능

율곡 이이는, 이론적 고원(高遠)함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노자」에 담긴 수신적 덕목들은 귀담아들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노자」가 유학의 체계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선구적 해석을 제시하였다. 서명응이 「노자」의 비움과 낮춤의 도리를 양생(養生)과 처세의 가르침으로 삼겠다고 하고, 홍석주가 마음 수양법으로 수정(守靜)과 과욕(寡欲)에 주목하여 양생의 방법에 관심을 기울인 것 등은 이이와 상통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노자의 본의가 유학의 수기치인(修己治人) 체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닌데, 후세 사람들이 곡해하여 「노자」를 부정적으로 보게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은 노자와 장자를 구별하여 이해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서명응이 「장자」내용의 황당함을 거론하여 「노자」와 차별화 하고, 홍석주가 노자와 도가를 구별하면서 장자가 유학의 도를 비난한 점 등을 거론한 것은 이러한 이해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도가서 주석가들 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인물은 박세당이다. 그는 노자 사상이 성인(聖人)의 도(道)는 아니지만 그 사상을 배척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하고, 세간에서 읽고 있는 「노자」를 성인의 가르침 속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보며, 「노자」의 올바른 해석을 학문적 과제로 삼았다. 그는 겸허의 처세술을 노자의 장점으로 파악하고, '무(無), 무위(無爲)' 등을 유학의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이해하였다. 하지만 '장차 빼앗으려거든 반드시 주어야'라는 말은 권모(權謀)에서 비롯되었으며, '공명(功名)과 이익에 머무르지 않는다'도 결국 공명이 자기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등 비판적 입장도 제시하였다.

바른 국어 다른 결과

주간 서성수 고난이도3

한편, 박세당은 당시까지 장자 사상의 근본 성격이 제대로 밝혀 지지 않았기 때문에 「장자」를 주해한다는 입장을 제시하면서, 장자가 제자(諸子) 가운데 공자를 제대로 따르고자 했던 사람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그는 「장자」를 사회적 가치 실현과 밀접한 고전이라고 보고, 장자가 유학의 윤리 강상을 모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 삶의 세계와 동떨어지지 않았다고 이해하였다.

[가]「친유가적 장자」로의 전환을 꾀했던 그의 「장자」이해에서 주목되는 부분 중 하나는 제물론의 '성심(成心)'을 장자의 본의와 달리 해석한 부분이다. 장자는 본래 '성심'을 구성된 마음, 즉 피아간의 시비를 일으키는 선입견으로 파악하고, '성심'의 존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성심'이 모든 사태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보았다. 삶의 과정에서 형성된 선입견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다른 사태나 타자를 인식하고 판단하면, 그 결과는 제한적이고 상대적이어서 상호 대립 과정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장자는 시비 대립이 결국 허구성을 면하지 못한다고 보고, 관조의 태도를 통해 시비 대립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박세당은 '성심'을 하늘에 정해진 이치가 나에게 부여된 것, 즉 인간에게 내재 한 보편적 마음으로 해석하였다. 모든 사람은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을 갖추고 있고, 이것에 따른 인식과 판단은 객관적이기 때문에, 시비 대립이 해소됨은 물론 인식의 동질성도 확보된다고 파악하였다. 그는 객관적 시비 판단을 통해 합리적 정치 행위의 실천적 근거가 마련된다고 보았다.]

박세당의 이러한 접근 방식은, 노자 사상과 유학의 친근성을 긍정하고자 「노자」의 반유학적 요소들을 의도적으로 생략하거나 그 의미를 적절히 약화하여 주해한 다른 도가서 주석가들의 태도와 상통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다른 도가서 주석가들과 함께 그의 해석은 조선 중기 이후의 유학자들이 보수적 폐쇄성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다른 사상에 대해 포용성을 넓혀 갔다는 하나의 징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도가서 주석가들은 노자 사상의 실제적 효용성보다 이론적 체계성에 주목해 이해하고자 하였다.

: 2문단에서 알 수 있듯 옳곡 이이는 노자 사상이 이론적 고원함이 있다고 이야기 했으며 다만 이것들이 보여주는 수신적 덕목들에는 귀기울이라고 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서명웅과 홍석주 역시 노자 사상을 양생과 처세의 가르침으로 또 마음 수양법으로 이야기하면서 실제적 효용성에 주목하였다.

② 도가서 주석가들은 노자 사상을 당대의 지배적인 가치 체계의 범위 안에서 수용하고자 하였다.

: 2&3문단에서 알 수 있듯 도가서 주석가들은 당시의 지배적인 가치인 유학 사상 안에서 도가 사상을 받아드리려 하였다, 이는 유학의 수기 치인의 체계와 부합되는 노자 사상의 수용, 노자 사상을 성인의 가르침 안으로 끌어들이는 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도가서 주석가들은 유학과 노자 사상이 근본 취지에서 통하는 점이 있다는 관점을 보여주었다.

: 2문단에서 알 수 있듯 옳곡 이이와 서명웅 그리고 홍석

바른 국어 다른 결과

주간 서성수 고난이도3

주 등의 도가서 주석가 들은 노자 사상의 본의가 유교의 수기 치인의 체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것이 그들의 서술에서 등장한다

④ 조선 중기에는 도가 사상에 대한 비판적 입장이 주류를 형성하였지만, 무조건 배척과는 다른 시각이 드러났다.

: 글 전체에서 알 수 있듯 도가 사상에 대한 의식은 기본적으로 부정적 입장에서 비판적 수용으로 변화하였으며 이는 유학 사상을 중심으로 세속에서 많이 읽히는 도가 사상을 수용하는 것이다.

⑤ 도가서 주석가들은 유학과 노자 사상이 충돌하는 지점을 은폐하여 유학과 노자 사상의 사상적 거리를 좁히고자 하였다.

: 6문단에서 알 수 있듯 박세당은 성심에 대한 이해처럼 유학과 노자 사상이 충돌하는 지점을 은폐하여 유학과 노자 사상의 사상적 거리를 좁히고자 했다.

2. 「노자」와 「장자」에 대한 박세당의 견해와 부합하는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노자」가 비록 성인의 도는 아니지만 그 책이 세상에 이미 통행하고 있으니, 그 뜻을 제대로 밝히지 않아 다음 세상을 거듭 그리치게 해서는 안 된다.

ㄴ. 도가라고 불리는 이들은 예(禮)로써 공명을 도모하고, 항상 치도(治道)를 말하나 수기에 근본하지 않는다. 이것은 노자가 꺼려서 멀리한 것이다.

ㄷ. 장자는 노자를 조종(祖宗)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노자의 학문은 세상에 나와서 대응하고자 하는데, 장자는 이와 같지 않다.

ㄹ. 공자가 존경받고 숭배되어야 하는 까닭을 제대로 알고 있던 자로는 장자에 견줄 만한 사람이 없다. 따라서 배우는 사람은 마땅히 「노자」의 언외(言外)의 의미도 궁구해 알아야 한다.

보기 독해

ㄱ: 3문단에서 알 수 있듯 노자는 성인의 도는 아니라고 했지만 이를 배척 대상으로 삼지 말고 성인의 가르침 속으로 끌고 들어와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이런 부분은 그 뜻을 유교적 관점에서 제대로 밝혀 다음 세상을 그리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과 연결된다

ㄴ: 박세당은 노자를 겸허와 처세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나 결국 공명이 자기에게 있기를 바란다는 것이며 권모적 속성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로서 공명을 도모한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ㄷ: 4문단에서 알 수 있는 박세당은 장자의 사상이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밀접한 교전이라고 보았으며 현실적 삶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장자의 학문이 세상에 나와서 대응하고 있지 않다는 서술은 적합하지 않다

ㄹ: 4문단에서 알 수 있듯 박세당은 장자가 제자 가운데 공가를 가장 제대로 따르고자 했던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장자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시도 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바른 국어 다른 결과

주간 서성수 고난이도3

13.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장자는 제한적 인식에 따른 시비 판단은 허구성을 수반한다고 본다.

: (가)에서 알 수 있듯 장자는 성심을 제한적 인식에서 나온 선입견이라고 보았고 이로 인해 생기는 시비 판단은 허구적이라고 인식하였다

② 장자는 시비 대립의 원인을 인식 주체의 상대성에 초점을 맞추어 파악한다.

: (가)에서 알 수 있듯 장자는 시비 대립의 원인을 성심 즉 인식 주체가 가지는 선입견과 상대성에서 찾고 있다

③ 장자는 시비 대립의 원인인 선입견이 새로운 인식을 통해 수정·보완되어 객관화된다고 본다.

: (가)에서 알 수 있듯 장자는 시비 대립의 원인은 성심을 새로운 인식을 통해서 추가하고 변화시켜 객관화하는 것이 아니라 관조의 태도를 강조한다.

④ 박세당은 객관적인 판단 근거의 근원적 설정이 시비 대립을 해소 한다고 본다.

: 2문단에서 알 수 있듯 박세당은 성심을 인간에게 내재된 보편적 마음으로 해석하였으며 이것에 따르면 시비의 대립이 해소됨은 물론 인식의 동질성도 회복된다고 보았다

⑤ 박세당은 시비 대립에 대한 해결을 구체적인 현실 문제의 해결과 연관하여 파악한다

: 2문단에서 알 수 있듯 성심을 통해 시비 대립이 해소되고 합리적 정치 행위의 실천적 근거가 마련된다고 보았다.

[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최근 탈식민주의 문학 연구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 가운데 하나는 양가성 개념이다. 원래 양가성은 어떤 것과 그 정반대 의 것을

동시에 욕망하는 것을 가리키는 심리학 용어인데, 탈식민주의 이론가들은 이것을 식민 상황의 일반적 특징으로 확장한다. 곧 식민자(colonizer)와 피식민자(colonized)의 정체성, 언어, 문화는 분열적이고 모순적이라는 것이다.

〈POINT1 첫 문단 독해〉

1) 개념 정리

양가성: 어떤 것과 그 정반대의 것을 동시에 욕망하는 것

2) 첫 문단 이해

‘탈식민주의 문학 연구에서의 양가성’

‘원래는 어떤 것과 정반대의 것을 동시에 욕망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

‘식민 상황에 일반적 특징으로 적용’

‘식민자와 피식민자의 문화는 분열적& 모순적’

3) 예측 하기

사용된 구조: A-A’

우선 식민자와 피식민자의 정체성, 언어, 문화가 분열적이고 모순적이라고 이야기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순적이고 분열적인지에 관한 설명이 없다.

따라서 뒤에서는 피식민자와 식민자가 어떻게 분열적이고 모순적인지에 대해 구체화하게 될 것이다.

또한 특성은 양가성이라는 개념에서 시작하는 것이기에 설명의 과정에서 양가성이 다시 등장할 수도 있다.

식민자와 피식민자의 분열적이고 모순적인 정체성, 언어, 문화

- 피식민자의 분열적이고 모순적인 정체성, 언어, 문화 구체화

- (양가성 개념의 활용)

- 식민자의 분열적이고 모순적인 정체성, 언어, 문화 구체화

- (양가성 개념의 활용)

바른 국어 다른 결과

주간 서성수 고난이도3

‘분열된 정형’은 이러한 식민지적 양가성의 대표적 사례이다. 원래 정형이란 그 이미지가 고정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식민자가 문학 작품에서 피식민자를 묘사할 때 그 정형은, ㉠ ‘충직한 거짓말쟁이’라는 말이 잘 보여 주듯이, 분열·모순되어 있으면서 양가적인 두 이미지 사이를 끊임없이 왕복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피식민자의 유동하는 정형, 즉 ‘재현된 타자성’은 그것을 거울로 하여 형성되는 식민자의 정체성마저 불안정하게 만든다.

식민자가 피식민자를 본국에 맞게 교화하려 하거나 거꾸로 피식민자가 식민자에게 자발적으로 동화되려 할 때, 피식민자는 식민자의 문화, 언어 등을 모방하게 된다. 그러나 아무리 피식민자가 식민자를 모방하려 해도 그 모방은 완전히 똑같은 복제가 되지는 못한다. 그것은 피식민자의 완전한 동화를 두려워한 식민자가 본국의 문화와 언어 등을 불완전하게 전달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둘이 놓인 맥락(역사, 전통, 언어 등)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피식민자의 모방은 거의 같지만 똑같지는 않은 ‘흉내 내기’가 될 뿐이다. 모방 과정에서의 차이는 피식민자의 의도 때문에 발생하기도 한다. 피식민자는 식민자의 문화와 담론을 모방하면서도 그것을 비틀어 조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차이를 발생시키는데, 이를 ‘전유’라 한다.

주목할 점은 신성하고 권위적이어야 할 식민자의 담론과 문화가 흉내 내기나 전유의 과정에서 피식민자에 의해 오염되고 훼손 된다는 것이다. 탈식민주의 이론은 이런 이유로 흉내 내기나 전유가 모두 식민자에 대한 ‘저항’으로 기능한다고 말하며 저항의 외연을 확장한다. 그 때문에 피식민자의 의식적인 동화 행위도

차이를 낳는 무의식적인 저항이 될 수 있다. 식민자의 문화를 흉내 낸 ㉡ ‘검은 셰익스피어’는 차이를 통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식민자에 저항했던 것이다.

흉내 내기나 전유는 식민자와 피식민자의 문화, 담론, 인종, 언어 등을 섞이게 만드는데, 이러한 섞임을 ‘혼종’이라 한다. 혼종은 피식민자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식민자와 피식민자 사이의 상호 전염·변형을 통해 식민자에게도 나타난다. 혼종은 절대적이고 뛰어넘을 수 없는 차이와 위계를 상정하는 식민자에게 위협적이다. 식민자와 피식민자가 모두 그 정체성이 오염되고 유동적인 혼종이라면 자기 우월성의 근거도, 따라서 식민 지배의 근거도 뿌리째 흔들리기 때문이다.

한국 근대 문학 연구는 이러한 양가성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친일과 반일이라는 민족주의적 이분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식민 경험을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하면서도 식민 지배를 비판할 수 있게 되었다. 민족주의는 피식민자의 정체성이건 식민자의 정체성이건 단일하고 고정된 것으로 상정하고 피식민자의 민족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이 식민 지배를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주의는, 친일과 반일의 어느 한 쪽으로 재단할 수 없는 일상적인 식민 경험에 주목하지 않았다. 탈식민주의 문학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 식민 지배에 대한 다양한 문학적 저항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

주간 서성수 고난이도3

4.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은 식민자와 피식민자 사이의 차이를 드러내고, ㉡은 그 차이가 사라진 것이다.

: 2&4&5문단에서 알 수 있듯 ㉠은 식민자와 피식민자의 문화가 섞이는 측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그 차이가 사라졌다고 하기는 어렵다

② ㉠은 피식민자의 분열된 정체성을 보여 주고, ㉡은 식민자의 분열된 정체성을 보여 준다.

: 2&4&5문단에서 알 수 있듯 ㉠은 피식민자의 분열된 정체성은 보여주게 된다. 그러나 ㉡은 피식민자의 모방과 그로 인한 저항을 보여줄 뿐 식민자의 분열된 정체성을 바라본다고 하기는 어렵다

③ ㉠은 피식민자의 단일한 타자성을 드러내고, ㉡은 피식민자의 불완전한 모방을 드러낸다.

: 2문단에서 알 수 있듯 ㉠은 피식민자의 유동하는 정형과 재현된 타자성을 드러내지 단일한 타자성을 드러내지는 못한다

④ ㉠은 식민자에 의해 부여된 양가적 이미지이고, ㉡은 피식민자가 생산한 혼종적 문화이다.

: 2문단에서 알 수 있듯 ㉠은 식민자에 의해 묘사되는 피식민자로 이는 양가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은 피식민자의 모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며 이때는 흉내내기 등을 통해 혼종적 문화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⑤ ㉠은 피식민자가 식민자를 재현할 때 발생하고, ㉡은 피식민자가 식민자를 모방할 때 발생한다.

: 2문단에서 알 수 있듯 ㉠은 식민자가 피식민자를 묘사할 때 드러나는 특성이다.

5. 민족주의와 탈식민주의를 비교하여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민족주의와 탈식민주의는 식민 지배를 비판·극복하고자 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다.

: 6문단에서 알 수 있듯 민족주의와 탈식민주의는 모두 식민 지배를 극복하고 비판하고자 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다

② 민족주의는 탈식민주의와는 달리 의식적 협력과 무의식적 저항이 공존할 수 있다고 본다.

: 6문단에서 알 수 있듯 민족주의는 식민자의 정체성이건 피식민자의 정체성이건 고정된 것으로 인식한다. 이는 혼종과 양가성의 개념들이 포함된 의식적 협력과 무의식적 저항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③ 민족주의는 탈식민주의와는 달리 피식민자의 모방이 분열적인 혼종을 낳을 수 없다고 본다.

: 6문단에서 알 수 있듯 민족주의는 식민자의 정체성이건 피식민자의 정체성이건 고정된 것으로 인식했기에 피식민자의 의도적 모방 등이 무의식적인 저항과 분열적인 혼종을 낳는다는 양가적 개념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④ 민족주의는 탈식민주의와는 달리 식민자와 피식민자가 서로 다른 고정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 6문단에서 알 수 있듯 민족주의는 탈식민주의와는 다르게 유동적인 정형, 혼종, 양가성과는 다른 고정된 정체성을 이야기 하며 피식민자의 민족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을 강조했다

⑤ 민족주의는 단일하고 고정된 주체에 의해, 탈식민주의는 분열되고 모순된 주체에 의해 저항이 가능하다고 본다.

: 6문단에서 알 수 있듯 민족주의는 고정된 주체의 민족성, 탈식민주의는 양가성을 가진 유동적인 정형의 의식적

바른 국어 다른 결과

주간 서성수 고난이도3

무의식적 저항을 이야기했다.

6. <보기>는 일제 강점기에 창작된 소설의 일부이다. 위 글의 관점에 따라 <보기>를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숙부는 한 군(郡)의 수장으로서 조선어를 사용하는 게 위신에 관련된 일이라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어로 연설하고 코 풀이 선생에게 조선어로 통역하게 했다. 인식(仁植)은 숙부가 일본어 따윈 전혀 알지도 못하는 젊은 첩을 향해서조차 어찌나 득의양양하게, 그게 또 대단한 일본어라도 되는 양 청산유수로 떠들어대는 것을 몇 번이고 봐 왔기 때문에, 숙부가, 누구 하나 일본어를 아는 사람 없는 화전민들을 향해, 군이 통역을 대동하여 실로 애처로우리만큼 엉터리 일본어로 연설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특별히 놀라지도 않았다.

(중략) 숙부는 말했다.

“저 여우 같은 낯짝을 하고 있는 내무 주임은 말이다. 연설만은 나를 당해 낼 수 없어서 두 손 다 들었던 말이지. 아무리 자기가 일본인이고 상관인 나보다 실권도 월급도 많다고 잘난 척 해도, 연설하는 것을 보면 내가 월등하다는 건 명백하니까.”

보기 독해: 글과의 연결이 핵심

모방이 무의식적인 저항으로 역할, 일본어, 일본 문화의 신성하고 절대적인 위계를 위협

무조건적인 위계에 대한 흔들림

(인물도 일부 무조건적인 위계를 인정하지 않음)

① 숙부가 일본인을 흉내 내어 구사하는 엉터리 일본어는 혼종으로 볼 수 있다.

② 숙부가 구사하는 일본어는 원어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본어를 훼손한다고 할 수 있다.

③ 숙부는 일본어를 고집한다는 점에서 식민자를 자발적으로 모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숙부가 엉터리 일본어를 구사하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식민자에 대한 저항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숙부가 구사하는 일본어가 식민자가 구사하는 일본어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숙부의 행위는 전유라 할 수 있다.

: 3문단에서 알 수 있듯 전유는 의도적인 비품이다. 하지만 숙부는 의도적인 동화를 꿈꾸는 부역 세력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도적인 비품과 의식적인 저항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7-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돕거나 심지어 목숨까지 바치는 행위를 이타적이라고 칭송한다. 그러나 심리적 이기주의에 따르면 이타적인 행위는 없다. 인간의 모든 행위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POINT1 첫 문단 독해〉

1) 개념 정리

명시적 내용이 없음

2) 첫 문단 이해

이기적 행위에 따르면 이타적 행위 없음

모두자신의 이익을 위하기 때문

바른 국어 다른 결과

주간 서성수 고난이도3

3) 예측 하기

사용된 구조: A-A'

우선 심리적 이기주의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따라서 뒤에서는 이 심리적 이기주의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

특히 심리적 이기주의를 설명할 때는 개인의 이익과 연관된 내용이 나올 수 있다

심리적 이기주의에 대한 구체화

- 심리적 이기주의의 내용이 무엇인가?
- 심리적 이기주의에서 이익에 관한 설명
- 바탕으로 새로운 이야기 가능(a-a'만 있기에)

심리적 이기주의를 지지하는 논증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논증은 우리가 이기적인 행위를 했든 이타적인 행위를 했든 우리는 단지 가장 원하는 행위를 했으므로 이타적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신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뿐이므로 '이타적'이었다고 칭찬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 논증은 이타적으로 행동하면 사람들이 만족감을 얻는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아무리 이타적인 행위라고 해도 결국에는 자기만족을 위한 행위라는 것이다.

㉠ 이런 심리적 이기주의의 논증에는 결함이 있다. 첫 번째 논증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도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생각에서 행동할 때도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논증도 역시 결함이 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한 동시에 그로부터 만족감을 얻는다는 사실은 그 사람이

만족감 때문에 그 일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는다. 우리는 합격, 결혼, ㉡ 다른 사람을 돕는 일 등 다양한 일을 원하지만, 이 일을 성취했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부수적인 산물일 뿐 우리가 얻고자 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돕는 일을 아예 하지 않았을 것이다.

심리적 이기주의가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실제로 하고 있는가에 관한 이론이라면, 윤리적 이기주의는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가에 관한 규범적 이론이다. 심리적 이기주의는 우리가 언제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주장하지만, 윤리적 이기주의는 우리가 실제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든 안 하든 각 개인들은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곧 윤리적 이기주의는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말한다. 그렇다고 해서 윤리적 이기주의가 다른 사람을 돕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 나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그런 행위를 금지하지 않는다. 또 윤리적 이기주의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든 상관하지 않는 이론은 아니다. 윤리 이론이라면 말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관한 이론이어야 하므로,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각자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윤리적 이기주의는 실천적인 측면과 논리적인 측면에서 모두 심각한 문제점을 낳는다. 먼저 윤리적 이기주의는 현실적으로 이익의 충돌을 해결할 수 없다. 서로 대결하는 두
바른 국어 다른 결과

주간 서성수 고난이도3

사람 중 한 사람의 승리는 그의 이익이지만 상대방의 이익에는 위배되므로 그는 상대방을 확실히 제압할 때까지는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된다. 그런데 이것은 상대방 입장에서조차 마찬가지이다. **윤리를 자기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 대한 해결책이 결코 존재할 수 없으므로, 윤리적 이기주의는 수용하기 힘들다.**

더 나아가 윤리적 이기주의는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된다. A, B 두 사람의 대결을 생각해 보면, A가 자신을 제압하려는 B의 행동을 막는다면 A의 행위는 잘못된 행위이면서 동시에 잘못된 행위가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A는 B가 자신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하게 막아야 하는데, 바로 그 행위가 A가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동시에 B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잘못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윤리적 이기주의는, 윤리적 판단은 충분한 이유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윤리 이론의 기본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성차별주의처럼 충분한 이유 없이 차별을 옹호하는 이론은 독단적이다. **윤리적 이기주의도 나의 이익을 다른 사람의 이익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나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독단적인 이론이 된다.**

7.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① 심리적 이기주의는 욕구와 당위성 사이에 갈등이 있음을 인정한다.

: 2문단에서 알 수 있듯 심리적 이기주의는 당위성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즉 원하고, 이익이 되고, 만족감을 얻기에 한다고 이야기할 뿐 욕구와 당위성 즉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할 것 사이의 갈등을 이야기 하지는 않는다

② 심리적 이기주의와 윤리적 이기주의 모두 의무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 4문단에서 알 수 있듯 윤리적 이기주의에서는 개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하는 것을 의무라고 바라본다

③ 윤리적 이기주의는 우리가 만족감 때문에 행동한다는 것은 부인 하지만, 원하는 일만 한다는 것은 인정한다.

: 2&4문단에서 알 수 있듯 윤리적 이기주의는 우리가 만족감과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만족감 때문에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④ 심리적 이기주의와 달리 윤리적 이기주의는 우리가 실제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 4문단에서 알 수 있듯 윤리적 이기주의는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을 하든 말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일을 추구하라고 하며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는다

⑤ 윤리적 이기주의와 달리 심리적 이기주의는 우리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 1&4문단에서 알 수 있듯 윤리적 이기주의는 우리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든 하지 않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했기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을 때가 있음을 인정했다

바른 국어 다른 결과

주간 서성수 고난이도3

8. ㉠처럼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 ㉡을 평가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처럼 생각하는 사람의 심리적 이기주의를 비판하는 입장으로 이타적 행위의 인정, 만족감과 이익만을 위해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 이타적 행동 역시 개인의 이익과 만족감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야 한다

㉡ 은 이타적인 행위를 나타낸다

① 타인을 돕는 행위는 이기적이지만 그 동기는 이타적이다.

: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행동임을 나타내는 것이기에 ㉠의 입장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② 타인을 돕는 일을 한 사람은 그 일로 칭찬을 받을 만하다.

③ 타인을 돕고 싶지 않지만 의무감 때문에 타인을 도울 때도 있다.

④ 타인을 돕는 데서 생기는 만족감 때문에 돕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⑤ 타인을 도움으로써 만족감을 얻는다면, 그 만족감은 돕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 3문단에서 알 수 있듯 이타적인 행동을 주지하는 입장에서 타인을 돕는 행위에서 느끼는 만족감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것이 원인이 되어 행위를 이끈다는 생각을 부정한다.

9. 윤리적 이기주의자가 글쓴이의 주장을 비판하고자 할 때,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 누군가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을 막는다고 해서 꼭 잘못된 행위인 것은 아니다.

㉡.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 모든 사람이 조화롭게 공생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고 해서 적절한 윤리 이론이 아닌 것은 아니다.

㉢. 나는 나의 이익에 따라 행동해야 하지만 상대방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으므로, 상대방의 이익과 충돌 여부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 사람들에게 대한 차별적 대우는 그런 대우가 타당하다는 것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실제적 차이가 당사자들 간에 존재하는 것을 보여 줄 수 있을 때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보기독해:

㉠: 서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딜레마를 해결

㉡: 서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피해와 딜레마를 해결

㉢: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윤리적 이기주의자도 이야기 함

㉣: 차별적 대우를 이야기하지 않기에 이는 이익간의 우선 순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바른 국어 다른 결과

주간 서성수 고난이도3

[10-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디지털 사진에 특정 식별자, 곧 워터마크를 숨겨서 삽입하는 것을 디지털 워터마킹(watermarking)이라 한다. 삽입된 식별자를 특정 방법으로 추출하여 사진의 저작권 증명으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워터마킹은 원본을 회전, 잘라 내기, 축소 같은 편집이나 압축을 하여도, 워터마크가 원형에 가까운 형태로 추출되어야 하는 강인성(robustness)이 어느 정도 유지되어야 하며, 워터마크를 삽입하더라도 원래의 데이터 저장 형식이 바뀌지 않아야 한다. 또한 삽입된 식별자가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비가시성(invisibility)이 유지되어야 한다.

〈POINT1 첫 문단 독해〉

1) 개념 정리

워터마킹: 디지털 사진에 특정 식별자 즉 워터마크를 숨겨서 삽입하는 기술

강인성: 원형에 가까운 상태로 추출되는 특성

비가시성: 식별자가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특성

2) 첫 문단 이해

워터마크를 숨겨서 삽입하는 기술이 워터마킹

이 기술에서는 원본을 회전, 잘라 내기, 축소 같은 편집이나 압축을 하여도 워터마크가 원형에 가까운 형태로 추출되는 강인성

쉽게 눈에 띄지 않는 비가시성도 필요하다

3) 예측 하기

사용된 구조: A-A' / 과정& 원리

우선 이 글은 워터마크와 워터마킹에 대해서 이야기 했지만 그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뒤에서는 이 워터마크와 워터마킹이 무엇인지 설명해야 한다.

특히 이를 설명하면서 비가시성, 강인성, 데이터의 저장 형식 등이 구체화 될 수 있다

이 같은 개념 구체화가 충분히 이루어진 이후에는 이제 워터마크를 숨겨서 삽입하는 과정과 원리 그리고 이를 다시 추출하는 과정과 원리가 제시될 수 있다

워터마크와 워터마킹의 과정과 원리

- 워터마크가 무엇인가?
- 워터마킹은 무엇인가?
- (비가시성과 강인성 데이터 형태 설명 가능)
- 이후에 식별자를 삽입하는 과정과 원리
- 식별자를 추출하는 과정과 원리가 구체화

디지털 사진의 데이터는 가로, 세로의 격자 모양으로 배열된 화소의 밝기 값으로 표현된다. 각 화소의 밝기 값을 2차원 배열 형태의 데이터로 표현하는 방식을 공간 영역 방식이라고 한다. 공간 영역 방식으로 표현된 디지털 사진의 데이터에서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영역에 있는 화소들의 밝기 값을 적당히 변경하여 워터마크를 삽입할 수 있다. 가령 어떤 상표의 이미지 데이터를 특정 영역의 화소 값에 더하거나 곱하여 밝기 값에 포함하면 된다. 공간 영역에서는 화소 값에 직접 식별자를 삽입할 수 있기 때문에 워터마크 삽입과 추출에 필요한 연산량이 비교적 적고 식별자의 삽입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삽입된 워터마크는 특정 영역에 한정되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잘라 내기와 같은 간단한 영상 처리 또는 정보의 손실이 발생하는 데이터 압축에 의해서 쉽게 훼손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주파수 영역을 이용하면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다. 단위 거리당 밝기가 변화하는 정도를 공간 주파수라고 하는 데, 공간 주파수는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공간적 이

바른 국어 다른 결과

주간 서성수 고난이도3

동에 따른 진동의 정도를 나타낸다. 디지털 사진에서 특정 방향으로 명암 변화가 자주 일어날수록 그 방향의 공간 주파수가 높게 측정되는데, 인접한 화소 사이에 밝기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날 때 공간 주파수는 최대가 된다. 이 원리를 이용하여 디지털 사진을 수평과 수직 방향의 2차원 평면에 대한 공간 주파수의 분포로 나타낼 수 있다. 이때 2차원 배열로 표현되는 공간 주파수의 2차원적인 분포를 공간 주파수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디지털 사진을 주파수 스펙트럼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주파수 영역 방식이라고 하는데, 공간 영역의 사진 데이터는 푸리에 변환 등 수학적 변환식에 의해 손실 없이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되고 그 역과 정도 성립한다.

주파수 영역에서 워터마크를 삽입하려면, 공간 영역의 데이터를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한 다음에 특정 주파수 대역에 식별자 데이터를 삽입하고, 그것을 다시 공간 영역으로 변환해야 한다. 특정 주파수 대역에 삽입된 식별자는 그 주파수를 포함하고 있는 공간 영역의 모든 화소에 분산되므로 사진 전체에 퍼져 저장된다. 이렇게 삽입된 워터마크는 사람의 시각에 쉽게 노출되지 않으면서도, 잘라 내기 등과 같은 영상 편집이 가해지더라도 남은 영역에 저장된 식별자 데이터에 의해 어느 정도 복원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공간과 주파수 영역 사이에 변환이 필요하므로 워터마크 삽입을 위한 연산량이 대폭 증가하게 되며, 특정 대역에 삽입된 식별자 데이터는 공간 영역에서 잡음(noise)의 형태로 나타나므로 사진 전반에 걸쳐 원본 사진이 흐려지거나 변형되는 등의 단점이 발생한다.

일반적인 사진에서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대부분의 정보는 저주파 대역에 몰려 있고, 사람이 사진의 내용을 인식할 때는 저주파 성분보다 고주파 성분에 상대적으로 둔감하게 반응한다. 따라서 워터마크 삽입으로 인한 잡음의 양은 대역과 상관없이 동일하더라도 고주파 대역에서는 원본의 왜곡이 눈에 잘 띄지 않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영상 손실 압축 기술이 고주파 성분을 제거하여 전체적인 데이터의 저장 크기를 줄이는 방법을 사용하므로 고주파 대역에 삽입된 워터마크는 압축에 취약해진다. 주파수 영역에서 워터마크는 압축에 대해 강인성이 유지되도록 대부분 중간 대역에 삽입된다.

10.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① 삽입된 워터마크의 비가시성이 낮을수록 저작권을 보호하기 쉽다.

: 1문단에서 알 수 있듯 비가시성은 얼마나 눈에 띄지 않는지와 관련된 부분으로 이 부분은 저작권의 보호와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설명되지 않는다. 워터마크의 비가시성이 낮아도 공간 영역 방식을 사용하면 잘라내기 등을 통해서 비교적 쉽게 제거가 가능하다

② 주파수 영역에서 공간 영역으로 변환할 때 데이터 손실이 일어난다.

: 3문단에서 알 수 있듯 주파수 영역에서 공간 영역으로 변환될 때 또 공간 영역에서 주파수 영역으로 변화될 때 모두 데이터의 손실 없이 변환된다.

③ 삽입된 워터마크는 공간 영역과 주파수 영역에서 잡음 형태로 나타난다.

: 3문단에서 알 수 있듯 특정한 주파수 영역에 식별자 데이터를 넣으면 삽입된 워터마크는 그 주파수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화소에 분포되게 되며 이는 변환되는 공간 영

바른 국어 다른 결과

주간 서성수 고난이도3

역과 주파수 영역에서 잡음의 형태로 등장한다

④ 주파수 영역에서 워터마크를 삽입하면 데이터가 저장되는 형식이 바뀐다.

: 3문단에서 알 수 있듯 주파수 영역에서 워터마크를 삽입하면 다시 공간 영역으로의 전환을 거쳐 저장되기에 데이터가 저장되는 형식이 바뀐다고 할 수 없다

⑤ 공간 영역의 워터마크 삽입에 필요한 연산량은 주파수 영역에 비해 많다.

: 2&4문단에서 알 수 있듯 공간 영역의 워터마크 삽입에 필요한 연산량은 별다른 변화 과정 등이 없기에 주파수 영역에 비해 적다

11. 공간 주파수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간 영역에서 화소의 밝기 값을 변경하면 주파수 스펙트럼이 변한다.

: 3문단에서 알 수 있듯 공간 영역에서 화소의 밝기 변화는 공간 주파수에도 그대로 반영되기에 공간 영역에서 화소의 밝기 값을 변경하면 주파수 스펙트럼도 변화하게 된다

② 인접한 화소가 흑과 백을 교대로 가지며 반복될 때 공간 주파수는 최대가 된다.

: 3문단에서 알 수 있듯 인접한 화소의 밝기 변화가 최대가 되면 공간 주파수는 최대가 된다

③ 공간 주파수가 높은 영역에 워터마크가 삽입되면 원본의 가시적 왜곡이 줄어든다.

: 4문단에서 알 수 있듯 고주파 대역은 원본의 왜곡이 눈에 띄지 않기에 여기에 워터마크가 삽입되면 가시적 왜곡이 들어든다

④ 공간 주파수 스펙트럼은 화소의 밝기 값에

푸리에 변환을 적용하여 얻을 수 있다.

: 3문단에서 알 수 있듯 공간 주파수 스펙트럼은 공간 영역의 사진 데이터를 푸리에 변환 등으로 손실없이 얻게 된다

⑤ 수평 방향의 단색 줄무늬가 조밀할수록 수평 방향의 공간 주파수가 높게 측정된다.

: 3문단에서 알 수 있듯 수평 방향으로 명암 변화가 자주 일어나야 하는데 단색 줄무늬라고 했기에 공간 주파수는 높게 측정되지 않는다

12. 다음 사진에 워터마크를 삽입한다고 할 때,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독해:A- 중간 주파수/ B는 고주파수/ C는 저주파

공간 영역과 주파수영역의 구분이 필요함

① 중간 주파수 대역에 워터마크를 삽입하면, A보다는 B에서 워터 마크의 비가시성이 낮다.

② 고주파 성분을 많이 포함하는 워터마크를 C의 공간 영역 데이터에 삽입하면 비가시성을 높일 수 있다.

: 고주파 성분을 많이 포함하는 워터마크를 주파수 영역에 삽입하면 비가시성을 높일 수 있다. 문제는 공간 영역이기에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C 같이 명암 차이가 적은 곳에 명암대비가 큰 줄무늬의 도형을 넣으면 오히려 가시성이 두드러진다

바른 국어 다른 결과

주간 서성수 고난이도3

③ 저주파 대역에 워터마크를 삽입한 다음, C가 제거된 영상을 이용하더라도 워터마크의 추출이 가능하다.

: 저주파 대역에 워터마크를 삽입하면 이는 저주파 대역 전체에 퍼지게 된다. 따라서 C를 제외한 몸 전체 등에 워터마크가 퍼지게 되기에 추출이 가능한 것이다

④ 중간 주파수 대역에 워터마크를 삽입하면, A보다는 C의 화소 밝기 값에 식별자 데이터가 많이 저장된다.

⑤ 고주파 대역에 워터마크를 삽입한 다음에 손실 압축을 하면, B 만을 이용하더라도 워터마크의 추출이 가능하다.

: B가 고주파의 부분이기때 이 부분의 워터마크는 손실될 것이다 다만 다른 고주파의 영역에 퍼져있는 워터마크의 데이터를 통해 워터마크 추출이 가능해진다

[13-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 아미노산이 연속적으로 연결되면 끈 모양의 폴리펩티드가 된다. 이 폴리펩티드는 꺾어지기도 하고, 둘둘 말리기도 하면서 3차원적인 입체 구조를 만들게 되는데 이 과정을 폴딩(folding)이라고 하며, 이렇게 입체 구조로 만들어진 폴리펩티드를 단백질이라고 부른다. 각각의 단백질은 특정한 3차원 구조를 제대로 갖추어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POINT1 첫 문단 독해〉

1) 개념 정리

폴딩: 폴리펩타이드가 꺾어지거나 둘둘 말리면서 3차원적 입체 구조를 만들어가는 과정

단백질: 입체 구조로 만들어진 폴리펩티드

2) 첫 문단 이해

아미노산의 연속적 연결이 폴리펩티드

폴리펩티드의 3차원적 구조형성이 폴딩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단백질

단백질의 기능에는 이 3차원적 구조가 필수

우선 이 글은 폴리펩티드와 단백질 그리고 폴딩에 대해서 이야기 했다. 특히 아미노산이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폴리펩티드가 되는 과정, 폴리펩티드가 폴딩되어 단백질이 되는 과정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에 관한 구체적인 과정과 원리를 서술하지 않았기 때문에 뒤에서는 이 아미노산이 연결되는 과정, 폴리펩티드가 폴딩 되는 과정,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구체화 될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 앞서 다양한 개념어들이 등장할 수 있다

단백질의 형성 과정

- 아미노산, 폴리펩티드에 대한 구체화
- (다른 개념어 등장 가능)
- 아미노산의 연결 과정& 원리
- 폴리펩티드의 폴딩 과정과 원리

단백질 생산에는 리보솜과 샤페론 등이 관여한다. 리보솜은 세포핵이 제공하는 유전자의 서열 정보에 따라 세포 내에서 만들어진 개개의 아미노산을 연결해 폴리펩티드를 만든다.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폴리펩티드 중에서, 일부는 자발적으로 폴딩하여 기능성 단백질이 되고, 스스로 폴딩하지 못하는 폴리펩티드는 샤페론의 도움을 받아 정상적으로 폴딩된다. 세포 내에는 다양한 종류의 샤페론이 존재하며, 그 각각마다 작용하는 폴리펩티드가 다르다.

대부분의 경우 폴리펩티드의 폴딩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폴리펩티드

바른 국어 다른 결과

주간 서성수 고난이도3

가 폴딩하지 못하고 서로 얹혀 응집된 덩어리 형태를 띤다. 또한 세포에 열, 중금속, 화학 물질 등과 같은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폴딩 중이거나 이미 형성된 단백질의 구조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비정상적인 3차원 구조로 변하는 미스폴딩(misfolding) 현상이나 3차원 구조가 완전히 붕괴 되어 풀리는 언폴딩(unfolding)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처럼 구조가 변한 단백질을 변성 단백질이라고 한다. 변성 단백질은 입체 구조가 흐트러져서 소수성(疏水性) 아미노산이 분자 표면에 노출된 형태로 바뀐 것이 많다. 변성 단백질 분자 표면에 노출된 소수성 아미노산들은 서로 당기는 상호작용을 한다. 그 결과로 변성 단백질들이 모여 물에 녹지 않는 응집체가 형성된다. 응집체의 형성 과정은 대부분 비가역적이어서 일단 형성된 응집체는 쉽게 응집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 응집체를 형성하기 전에, 응집체 형성을 저해하는 샤페론에 의해 변성 단백질이 원래 구조로 회복 되는 것이 리폴딩(refolding)이다. 리폴딩은 실험 상황에서는 샤페론 없이도 재현할 수 있다.

세포에는 잘못 생산된 단백질을 제거하거나 변성 단백질의 재생과 분해 작용을 담당하는 품질 관리 체계가 존재한다. 품질 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주요 기관 중 하나인 소포체 내부에 변성 단백질이 축적되면, 이것은 소포체에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 소포체 스트레스의 해소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소포체에 변성 단백질이 축적되면, ATF6가 활성화되어 소포체 샤페론의 생산을 촉진시키고, 샤페론은 리폴딩을 통해 변성 단백질을 정상 단백질로 재생한다. 재생이 되지 못하는 변

성 단백질은, IRE1과 XBP-1의 연쇄적인 활성화로 단백질 분해 기구가 활성화되어 분해된다. 이 분해 과정은 재생이 어려운 변성 단백질을 세포질로 역수송하여 분해되도록 하는 것으로, 세포질에 존재하는 유비퀴틴-프로테아좀계에서 일어난다. 또한 소포체에 스트레스를 주는 환경이 유지되어 변성 단백질의 축적이 지속되면, PERK의 활성화가 일어나고 이어서 단백질 합성 개시 인자인 eIF2 α 를 불 활성화(인산화)하여 리보솜의 단백질 합성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 하게 한다. 결과적으로 리보솜의 단백질 합성 기능을 멈추게 해 변성 단백질 생산량 자체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도 단백질의 품질 관리가 어려워지면 세포는 다음 단계의 수단으로 스스로 사멸하는 길을 택하기도 한다.

13.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단백질의 구조 변성은 세포의 생존을 위협한다.

: 5문단에서 알 수 있듯 단백질의 구조 변성은 그 단백질의 기능을 망가트리므로 결국 그 세포의 사멸도 이끈다는 점에서 세포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볼 수 있다

② 리보솜은 유전자 서열 정보를 받아 단백질 생산에 관여한다.

: 2문단에서 알 수 있듯 리보솜은 유전자 서열 정보를 받아 아미노산을 연결해 폴리펩티드를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폴리펩티드가 이후 폴딩되면서 단백질을 만들게 된다

③ 세포 내 단백질들의 폴딩은 세포에 가해진 열에 영향을 받는다.

바른 국어 다른 결과

주간 서성수 고난이도3

: 3문단에서 알 수 있듯 세포 내 단백질들의 폴딩은 세포에 가해진 열 충격속 화학물 등에 영향을 받으며 미스폴딩, 언폴딩 등의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④ 응집체를 형성한 세포 내 폴리펩티드는 자발적으로 리폴딩한다.

: 3&4문단에서 알 수 있듯 응집체는 기본적으로 비가역적이기에 자발적으로 리폴딩 하지 않는다

⑤ 단백질이 정상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단백질의 입체 구조에 의존 한다.

: 1문단에서 알 수 있듯 단백질의 정상 기능은 3차원의 입체 구조에 의존한다

14. ㉠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때, 그 원인이 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소포체의 XBP-1의 활성화

ㄴ. 유비퀴틴-프로테아좀계의 손실

ㄷ. 소포체 내의 샤페론의 농도 감소

ㄹ. 단백질 합성 개시 인자의 불활성화

제대로 리폴딩의 과정이 일어나거나 변성 단백질의 감소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의미이며

이는 샤페론의 감소, 유비퀴틴-프로테아좀계의 손실, 단백질 합성 인자의 활성화, 소포체의 XBP-1의 비활성화 등으로 연결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5.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실험 결과를 바르게 분석한 것은?

<보기>

서로 다른 단백질 A와 B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기 다른 네 가지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에는 농도가 낮은 A와 B의 수용액을 사용하였으며 두 수용액은 상온에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였다. 각 실험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ㄱ. A 수용액을 50℃로 가열했더니 불용성 응집체가 형성되었다.

ㄴ. B 수용액을 50℃로 가열했더니 아무 변화가 없었지만, 70℃로 가열하니 불용성 응집체가 형성되었다.

ㄷ. A 수용액과 B 수용액을 섞어 50℃로 가열했더니 응집체가 생성되지 않았다.

ㄹ. ㄱ 실험의 결과로 생성된 응집체를 수거하여 세제 수용액에 녹인 후, 세제를 완전히 제거하니 A가 물에 녹아 있었다.

(단, 수용액의 농도에 의해 발생하는 효과는 무시하며, ㄷ과 ㄹ 실험 결과에서 얻은 최종 수용액 속의 A는 정상적인 기능을 하였다.)

보기 독해: 글과의 연결이 중요하다 즉 단백질 합성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가 구체화되어야 한다.

ㄱ 열에 의해 변성 단백질이 만들어졌다고 해야 한다 즉 구조가 변화한 것이다.

ㄴ: B 역시 열에 의해서 변성 단백질로 변화하였으나 이 같은 변화는 A 보다 높은 70도에서 일어났다

ㄷ: A와 B를 섞을 경우 A 역시 변화가 없었다, 이는 B 단백질이나 아니면 특수한 환경에 의해서 샤페론 등에 의한 리폴딩이 이루어진 것이다. 기능에는 문제 없다

바른 국어 다른 결과

주간 서성수 고난이도3

≡: 세제가 샤페론 등의 역할을 해서 다시 리폴딩을 이끌어 냈으며 이때 기능에는 문제가 없다

① A의 응집체는 소수성 아미노산들이 분자 표면에서 내부로 이동 하며 형성된다.

: 3문단에서 알 수 있듯 응집체가 만들어졌기에 이는 소수성 아미노산들이 내부에서 표면으로 이동하며 형성된다

② B는 70°C에서 입체 구조의 변화가 없다.

: 3문단에서 알 수 있듯 응집체가 만들어졌기에 입체 구조의 변화가 생긴 것이다.

③ A는 B에 대해 샤페론과 같은 역할을 한다.

: 4문단에서 알 수 있듯 원래 만들어지는 응집체가 B와 함께 있을 경우에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기에 B가 샤페론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④ 세제는 A 변성 단백질 간의 소수성 상호작용을 차단한다.

: 3문단에서 알 수 있듯 세제는 변성 단백질을 다시 푸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수성 상호작용을 차단한다고 볼 수 있다

⑤ A는 ㄹ 실험의 시험관 조건에서 리폴딩되지 않는다

: 보기 에서 알 수 있듯 응집체가 풀리고 다시 원래 구조로 회복되었다는 의미이기에 리폴딩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재현적 회화란 사물의 외관을 실제 대상과 닮게 묘사하여 보는 이가 그림을 보고 그것이 어떤 대상을 그린 것인지 알아 볼 수 있는 그

림을 말한다. 음악은 어떨까? 회화가 재현적이 되기 위한 조건들을 음악도 가져야 재현적 음악이 될 수 있다면, 본질적으로 추상적인 모든 음악은 결코 대상을 재현할 수 없다고 해야 하는가?

〈POINT1 첫 문단 독해〉

1) 개념 정리

재현적 회화: 사물의 외관을 실제와 닮게 묘사하여 보는 이가 그림을 보고 그것이 어떤 대상을 그린 것인지 알아볼 수 있는 그림

2) 첫 문단 이해

재현적 회화는 그림을 통해 실제 대상을 알아 볼 수 있어야 함

음악의 재현성도 같은 조건이 필요한가

음악의 재현성이 가능한가

3) 예측 하기

사용된 구조: A-A' / Q-A

우선 이 글은 음악의 재현성을 제시했지만 그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은 하고 있지 않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회화의 재현성의 조건들을 제시했지만 그에 대한 설명도 없다 따라서

뒷글에서는 음악의 재현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회화의 재현성 조건이 등장할 수 있다.

결국 이를 통해 본질적으로 추상적이라는 음악이 재현적일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할 것이다

음악의 재현성에 대한 답변

- 회화적 재현 기준에 대한 설명
- 이 기준의 적용& 음악의 재현성
- 음악이 재현적일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

흔히 논의되는 회화적 재현의 핵심적 조건은 그림의 지각 경험과 그림에 재현된 대상을 실제로 지각할 때의 경험 사이에 닮음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음악이 이 요건을 만족시키

바른 국어 다른 결과

주간 서성수 고난이도3

지 못한다는 주장은 음악 작품의 이른바 순수하게 음악적인 부분이 재현 대상에 대한 즉각적인 인식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는 데에 주목한다. 예를 들어 사과를 재현한 회화에서 재현된 대상인 사과는 작품의 제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림 속에서 인식이 가능한데, 음악의 경우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음악은 재현적일 수 없다는 것이다. 바다를 재현했다고 하는 드뷔시의 <바다>의 경우라도, 표제적 제목을 참조하지 않는다면 감상자는 이 곡을 바다의 재현으로 듣지 못한 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일반화되기 어렵다. 모래 해안의 일부를 극사실주의적으로 묘사한 그림은 재현적 회화이지만 그 제목을 모르면 비재현적으로 보이기 십상일 것이다. 몬드리안의 <브로드웨이 부기우기>의 경우, 제목을 알 때 감상자는 그림에 그려진 선과 칠해진 면을 뉴욕 거리를 내려다 본 평면도로 볼 수 있지만 제목을 모를 때는 추상화로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회화적 재현에서 <브로드웨이 부기우기>와 같은 사례는 비전형적인 반면 음악의 경우에는 이것이 전형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학자들이 있다. 물론 음악에서는 제목에 대한 참조 없이도 명백히 재현으로 지각되는 사례, 예를 들어 베토벤의 <전원 교향곡>의 새소리 같은 경우가 드문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이 음악의 재현 가능성을 부정해야 할 이유가 될까? 작품에서 제목이 담당하는 역할을 고려해 보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음악 작품의 가사는 물론 작품의 제목이나 작품의 모티브가 되는 표제까지도 작품의 일부로 본다. ㉠이 입장을

근거로 할 때, 작품의 내용이 제목의 도움 없이도 인식 가능해야만 재현이라는 것은 지나친 주장이다. 제목이 작품의 일부인 한, 예술 작품의 재현성은 제목을 포함하는 전체로서의 작품을 대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슈베르트의 <물레질하는 그레첸>의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단순한 반주 음형은 제목과 더불어 감상될 때 물레의 반복적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들린다.

음악이 재현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은 작품 이해와 관련된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한다. 재현적 그림의 특징 중 하나는 재현된 대상에 대한 인식이 작품의 이해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재현적이라 일컬어지는 음악 작품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 ㉡ 이들의 입장이다. 감상자는 작품이 재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도 그 음악을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감상자는 <바다>가 바다의 재현으로서 의도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도 이 곡을 이루는 음의 조합과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이것이 곧 <바다>를 음악적으로 이해한 것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 이에 대한 반대의 입장도 제시될 수 있다. 작품의 제목이나 표제가 무시된 채 순수한 음악적 측면만이 고려된다면 작품의 완전한 이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표제적 제목과 주제를 알지 못하는 감상자는 차이콥스키의 <1812년 서곡>에서 왜 '프랑스 국가'가 갑작스럽게 출현하는지, 베를리오즈의 <환상 교향곡>의 말미에 왜 '단두대로의 행진'이 등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실로 이들 작품에서 그러한 요소들의 출현을 설명해

바른 국어 다른 결과

주간 서성수 고난이도3

줄 순수하게 음악적인 근거란 없으며, 그것은 오직 음악이 재현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의해서만 해명될 수 있다.

16.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바다>는 표제적 제목 없이는 재현으로 볼 수 없다.

: 2문단에서 알 수 있듯 음악의 재현성을 부인하는 쪽에서는 바다는 표제적 제목 없이는 바다의 재현으로 볼 수 없다고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비판된다.

② <브로드웨이 부기우기>는 제목과 함께 고려할 때 재현으로 볼 수 있다.

: 2문단에서 알 수 있듯 브로드웨이 부기 우기라는 설명은 제목과 함께 고려될 때 재현으로 인식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추상화처럼 인식된다

③ <전원 교향곡>에서 자연의 소리를 닮은 부분은 제목과 함께 고려해야만 재현으로 볼 수 있다.

: 3문단에서 알 수 있듯 전원 교향곡은 제목에 대한 참조 없이도 명백하게 재현으로 지각되는 경우로 제목과 함께 고려해야만 재현으로 볼 수 있다는 서술은 적합하지 않다

④ <물레질하는 그레첸>의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반주 음형은 제목과 함께 고려할 때 재현으로 볼 수 있다.

: 3문단에서 알 수 있듯 물레질하는 그레첸의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반주 음형은 제목과 함께 고려할 때 물레의 반복적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들린다.

⑤ <1812년 서곡>에 포함된 '프랑스 국가'는 순수하게 음악적인 관점에서는 그 등장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 5문단에서 알 수 있듯 '프랑스 국가'는 순수하게 음악적인 관점에서는 그 등장을 이해할 수 없으며 그러한 점이 음악의 재현성을 다시금 구체화해준다

17. 글쓴이의 견해와 일치하는 것은?

① 순수한 음악적 측면만으로 재현 대상에 대한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음악 작품이 흔히 존재한다.

: 3문단에서 알 수 있듯 글쓴이는 순수한 음악적 측면만으로 재현 대상에 대한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음악 작품은 흔히 존재하는 것은 아님을 인정한다. 즉 재현된 대상을 듣고 그 재현된 대상이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비전형적인 것이라는 사실은 인정한다

② 음악의 재현 가능성을 옹호하려면 회화적 재현을 판단하는 기준을 대신할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 2&3&4&5&6문단에서 알 수 있듯 음악의 재현 가능성을 옹호하면서 순수하게 음악적인 부분만을 가지고는 재현된 대상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어렵다는 부분 등을 제시해 회화적 재현을 판단하는 기준에서 음악의 재현성을 옹호하였다

③ 제목의 도움 없이는 재현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점이 음악과 전형적인 회화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성이다.

: 2&3문단에서 알 수 있듯 제목의 도움 없이는 재현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점이 회화에서는 전형적이지는 않다고 인정한다

④ 음악적 재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음악 작품의 의도를 전혀 모르는 감상자가 작품을 충분히 이해하는 경우가 전형적이어야 한다.

: 3문단에서 알 수 있듯 음악 작품의 의도를 전혀 모르는 즉 순수한 음악적 부분만을 듣고 음악을 충분히 이해하는

바른 국어 다른 결과

주간 서성수 고난이도3

것은 음악의 재현성을 반박하는 부분으로 음악의 재현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순수한 음악 부분을 제외하고도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⑤ 재현에 대한 지각적 경험과 재현 대상에 대한 지각적 경험 사이에 닮음이 존재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음악 작품이 존재한다.

: 2&3문단에서 알 수 있듯 베토벤의 전원 교향곡 같은 재현에 대한 지각적 경험과 재현 대상에 대한 지각적 경험 사이에 닮음이 있는 작품이 존재한다

18. <보기>에 대한 ㉠~㉣의 견해를 추론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슈만은 멘델스존의 교향곡 <스코틀랜드>를 들으면서 멘델스존의 다른 교향곡 <이탈리아>를 듣고 있다고 착각한 적이 있었다.이탈리아의 풍경을 떠올리며 <스코틀랜드>를 들었을 슈만은 아마도 듣고 있는 곡의 2악장의 주제에 왜 파,솔,라, 도,레의 다섯 음만이 사용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멘델스존의 의도는 스코틀랜드 전통 음악의 5음 음계를 제시 하려는 것이었다.

보기 독해:

제목이 있어야 제대로 된 인식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음악의 재현성을 강조하는 서술이다.

① ㉠은 이것을 예술 작품의 일부로서 제목이 갖는 중요성을 입증 하는 사례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2문단에서 알 수 있듯 제목을 통해 이탈리아의 풍경을

떠올렸다는 서술이 있기에 제목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다.

② ㉡은 슈만이 자신이 듣고 있는 곡의 재현 대상을 몰랐더라도 곡의 전체적인 조합만큼은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 5문단에서 알 수 있듯 ㉡은 슈만이 자신이 듣고 있는 곡의 재현 대상을 몰랐더라도 음의 구조 등은 알아차렸을 것이라고 이야기 하며 이것이 음악이 재현적이지 않은 근거라고 이야기 할 것이다

③ ㉢은 5음 음계가 사용된 이유에 대한 정보가 그 곡이 교향곡으로서 지니는 순수한 음악적 구조를 이해하는 데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5문단에서 알 수 있듯 5음 음계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며 이것 자체가 음악을 어느 정도 이해한 것이라고 여긴다

④ ㉣은 슈만이 자신이 듣고 있는 곡의 제목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 음악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다고 할 것이다.

: 6문단에서 알 수 있듯 ㉣은 음악의 재현성을 강조하며 곡의 제목을 잘못 알았기에 음악을 완전하게 이해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평가한다

⑤ ㉤은 이탈리아 풍경과는 이질적인 5음 음계로 인해 슈만이 자신이 듣고 있는 곡의 음악적 구조 파악에 실패했다고 할 것이다.

: 6문단에서 알 수 있듯 ㉤은 완전한 내용 파악에는 실패했다고 파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조 파악까지 실패했다고 보지는 않는다

바른 국어 다른 결과

주간 서성수 고난이도3

[19-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로마법대전」에 대한 연구는 12세기에 볼로냐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당시에 이 법서는 '기록된 이성'이라 부를 만큼 절대적인 권위가 인정되었고, 그 가운데 특히 「학설휘찬(Digesta)」 부분이 학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여기에는 로마 시대의 저명한 법학자들의 저술에서 발췌한 학설들이 수록되어 있다. 초기에 법학은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치중하였고, 로마법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금기시되었다. 이러한 학풍은 13세기 중엽 표준 주석서를 집대성하는 성과를 낳았고, 이후로는 로마법을 어떻게 실무에 적용할지의 문제로 법학의 중점이 옮겨 갔다. 16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는 「학설휘찬」에 대한 맹신에서 벗어나, 그것을 역사적 사료로 보면서 주석서의 해석에 얽매이지 않고 새롭게 접근하는 시도가 나타났으며, 이후에는 이런 경향이 낫설지 않게 되었다. 17세기의 학자인 라이프니츠도 로마법 자료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여 새로운 논의를 이끌어 내려 하였다. 다음은 「학설휘찬」에 나오는 파울루스의 글이다.

〈POINT1 첫 문단 독해〉

1) 개념 정리

명시적인 기준이 등장하지 않음

2) 첫 문단 이해

과거의 로마법 대전과 그 안에 학설휘찬은 그 자체가 절대적 권위를 인정 받았으며 이는 있는 그대로의 정확한 이해, 비판의 금지, 표준 주석서의 집필로 이어짐

이후에는 이를 어떻게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의 문제로 변화하였으며

마지막으로는 이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까지로 변화하였다

3) 예측 하기

사용된 구조: A-A' / 시간의 흐름 구조

우선 학설휘찬에 나온 파울루스의 글과 이에 대한 라이프니츠의 비판적인 접근이 등장하였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제시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뒤에서는 이에 파울루스의 견해가 제시되고 이에 대한 라이프니츠의 비판적인 문제 제기와 분석이 제시될 것이다.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이 서술된 이후에 이러한 관점들이 시대별로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이야기 할 수 있다..

파울루스의 판단에 대한 라이프니츠의 비판적 분석

- 파울루스의 분석
- 라이프니츠의 비판적 분석
- 이후 다른 시대의 다른 관점도 등장 가능

[가][펠릭스가 자신의 농장에 대해 에우티치아나(A), 투르보(B), 티티우스(C)에게 순차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 실질적 법률관계이다. 그런데 A는 C와의 소송에서 자신의 순위를 입증하지 못하여 패소하였고,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 B와 C 사이에 저당권의 순위에 관한 다툼이 생겨 소송을 하게 되었다. 이 경우에 A를 상대로 승소한 C가 B보다 우선한다고 해야 하는가, 아니면 A는 없다고 생각하고 B의 권리를 C보다 앞에 두어야 하는가?

㉠ 어떤 이들은 C가 우선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 나는 그런 결론이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A가 방어를 잘못된 탓에 C에게 패소했다고 하자. 그러면 C가 A에게 승소한 판결의 효력이 B에게 미치는가? 이후에 일어난 B와 C 사이의 소송에서 B가 승소하면 그 판결의 효력이 A에게 미치는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제3순위자는 제1순위자를 배제시켰다고 해서 자기가 제1순위 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 사이의 판결은 그 소송에 관여하지

바른 국어 다른 결과

주간 서성수 고난이도3

않은 이에게 유리하게도 불리하게도 작용하지 않는다. 첫 번째 소송의 판결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저당권자의 권리는 손대지 않은 채 남겨져 있는 것이다.]

③ 라이프니츠는 '손대지 않은 채 남겨져 있는 것'에 대하여 순위를 따져 보려고 하였다. 그는 우선 위 사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동일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은 설정한 순서에 따라 우선권이 주어지는 것이 로마법의 원칙이므로, (1) 가장 먼저 설정한 A의 권리는 최우선권을 가지므로 B의 권리에 우선한다. (2) 두 번째로 저당권을 설정한 B의 권리는 C의 권리에 우선한다. 하지만 (3) 판결로 확정된 법률관계는 그것이 진실한 것으로 취급될 수밖에 없으므로 C의 저당권은 A의 저당권에 우선한다. 여기서 (1)과 (3)이 충돌하지만 확정 판결의 효력 때문에 (3)이 우선할 수밖에 없으므로, 유효하게 고려하여야 하는 (2)와 (3)을 가지고 따져보면 순위는 간단히 정리될 수 있다고 보았다.

파울루스는 A가 제1순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하면서, C가 B보다 우선한다고도 B가 A보다 우선한다고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라이프니츠는 B가 A보다 우위라고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비판하였다. B가 C보다 앞설 경우에 C가 A보다 앞선다면, B는 A보다 앞서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B가 C보다 후순위가 된다고 가정하는 것은, 판결의 효력이 소송에 관계하지 않은 이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데 위배되는 상황, 곧 파울루스가 피하고자 하는 것을 피하지 못하게 되는 설정이 되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 라이프니츠는 이러한 결론이 한 번의 패소로 순위가 두 개나 밀리게 만들지만 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소송을 잘못된 이에게 두 번 불이익을 주는 것이 잘못이 없는 이에게 한 번 불이익을 주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라이프니츠는 파울루스가 현자라는 사실이 의심된다는 익살까지 부린다.

라이프니츠의 이러한 작업은 로마법이 끼친 영향과 함께 그에 대하여 자유롭게 접근했던 당시의 분위기를 짐작하게 해 준다. 18세기 이후에는 로마법 연구의 전통을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이론과 법체계를 성립시키는 발전이 이어진다

19.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① 12세기의 법학자들은 파울루스의 학설에 대하여 시대적 간극을 초월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이성적인 결과물로 여겼다.

: 1문단에서 알 수 있듯 12세기는 로마법대전을 기록된 이성으로 여기는 시기로 이때는 학설취찬에 수록된 파울루스의 학설에 대해 시대적 간극을 초월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여겼다

② 13세기에는 「학설취찬」보다 앞서 편찬된 「로마법대전」이 주요 한 연구 대상으로 선택되었다.

: 1문단에서 알 수 있듯 학설취찬은 로마법 대전의 한 부분으로 이것이 로마법 대전보다 앞서 편찬되었다는 이야기는 적절하지 않다

③ 17세기 이후의 법학은 당시의 실정에 맞지 않는 로마법에 대한 연구를 버리고 법률 실무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방법론을 추구 하였다.

: 1&5문단에서 알 수 있듯 17세기 이후 법학은 로마법 대전을 기반으로 이를 비판적으로 수용했지 이것을 버리거

바른 국어 다른 결과

주간 서성수 고난이도3

나 하지는 않았다

④ 라이프니츠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학설취찬」에 대한 비판이 금기시되었다.

: 1문단에서 알 수 있듯 라이프니츠가 활동하던 시기인 17세기에는 학설취찬에 대한 비판적 수용이 가능했다

⑤ 라이프니츠는 로마법을 역사적 사료로 보기 보다는 시공을 뛰어 넘어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전으로 보았다.

: 1&5문단에서 알 수 있듯 라이프니츠는 로마법 대전을 보편적인 법전이 아니라 역사적 사료로 바라봄으로써 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분석했다

20. [가]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B와 C 사이의 소송에서 B는 자신이 C보다 먼저 저당권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선순위자라고 주장하였을 것이다.

: B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승소를 위해 원래 정했던 저당권을 주장했을 것이다

② B와 C 사이의 소송에서 C는 A가 B보다 먼저 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것을 기초로 하여 자신이 B보다 선순위자라고 주장하였을 것이다.

: C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승소를 위해서 앞선 재판 결과를 활용해 자기가 B보다 선순위자라고 할 것이다. 다만 이에 관해 파울루스나 라이프니츠 모두 비판한다

③ ㉠은 C의 순위가 A에 우선한다는 판결이 B에게는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 어떤 이들은 C가 B에우선한다고 하며 이는 앞선 재판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④ ㉡은 A와 C 사이에 내려진 판결이 A, B, C

모두의 순위를 바꾸는 것으로 판결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 파울루스는 C가 B의 앞서는 것은 아니라고 하며 당사자간의 재판이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거부한다

⑤ ㉠과 ㉡ 모두 A와 C 사이에 내려진 판결의 효력은 인정해야 한다고 전제한다

: 2문단에서 어떤 이들이든 파울루스는 A와 C 사이의 판결에 대해서는 불만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단지 이결과 생긴 B와 C사이의 문제에 주목한다

21. ㉠가 한 논증 과정에서 나타나지 않은 것은?

① 저당권의 순위는 B, C, A의 순으로 놓인다는 결론을 내렸다.

: 3&4문단에서 알 수 있듯 결국 처음의 B와 C의 저당권 순서를 인정했으며 그 결과 A는 두 단계 밀리게 된다고 이야기 한다

② 확정 판결의 효력이 실질적 법률관계에 우선한다는 점을 전제로 삼았다.

: 3문단에서 알 수 있듯 A와 B의 실질적 법률 관계와 A와 C의 확정 판결의 효력을 이야기 하면서 A와 C의 확정 판결을 우선시하며 이것이 실질적 법률관계에 우선한다는 점을 전제로 삼았다

③ 저당권의 우선순위는 먼저 설정된 순서로 정해진다는 로마법의 원칙이 부당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3&4문단에서 알 수 있듯 로마법의 저당권 자체를 부당하다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처음의 저당권과 실질적 판결을 중심으로 B C A 의 저당권 순서를 제시한다

④ 파울루스가 논의한 사안을 정리한 결과, A

바른 국어 다른 결과

주간 서성수 고난이도3

가 제1순위라는 내용과 A가 제1순위가 아니라는 내용의 충돌이 일어나자 그 모순을 해결하였다.

3문단에서 알 수 있듯 A와 B의 실질적 법률 관계와 A와 C의 확정 판결의 모순을 이야기 하면서 A와 C의 확정 판결을 우선시하며 이것이 실질적 법률관계에 우선한다는 점을 전제로 삼았다

⑤ 권리를 입증하지 못하여 패소한 이가 이후에 자신이 당사자가 아닌 소송의 판결 때문에 거듭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지만, 그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 4문단에서 알 수 있듯 A가 두 단계 밀리는 것을 부당하다고 보지는 않았다

[22-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삶은 언제나, 어디서나 계속된다. 아우슈비츠에서도 일상은 있었다. 수감자들은 적어도 어떻게 살고 죽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었으며, 그 선택의 폭은 상당히 다양했다. 그곳에서도 인간은 행위 주체였던 것이다. 그들은 극한 상황을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경험했고, 전유했으며, 행동에 옮겼다. 따라서 얼핏 모순적으로 보이는 '아우슈비츠의 일상'은 존재했으며, '아우슈비츠의 일상사 (日常史)' 또한 가능하다. 대체로 역사 서술의 주 대상은 사회 전체나 개인을 움직이는 구조와 힘이지만, 일상사의 관심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사람들 사이의 상호 작용이 어떤 역사적 구체(具體)를 생산하고 변형하는지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프리모 레비는 '극한 상황 속의 일상', 즉 '비상한 일상'에 관심을 가졌다. 그는 공격당하며 무너지고 파멸

로 치달아 가는 인간성을, 또 어떻게 인간성이 살아남고 소생할 수 있는지를 낱알이 기록하고 분석하였다.

〈POINT1 첫 문단 독해〉

1) 개념 정리

명시적인 기준이 등장하지 않음

2) 첫 문단 이해

아우슈비츠에도 일상是有 있었음

개인은 행위의 주체로서 선택을 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사람들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역사적 구체를 형성하고 변하는지 바라보는 일상이 가능

이러한 흐름에서 비상한 일상에 대한 고찰이 등장

3) 예측 하기

사용된 구조: A-A'

우선 프리모 레비의 비상한 일상이라는 개념이 등장했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따라서 뒤에서는 이 비상한 일상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개인의 인간성이 살아남고 무너지고 소생하는지 이야기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인간성에 대한 고찰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선택과 연결되어 설명될 수 있다.

비상한 일상과 인간성의 변화

- 비상한 일상에 대한 설명

- 선택을 기반으로 어떻게 개인의 인간성이 변화하는지 구체화될 수 있다.

레비는 '회색 지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이분법적 구분으로는 '비상한 일상'속의 삶의 양태를 제대로 묘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택한 삶의 방식은 포기와 순응이었다. 그들 중 살아남은 이는 극소수였다. 그는 이들을 '끊임없이 교체되면서도 늘 똑같은, 침묵 속에

바른 국어 다른 결과

주간 서성수 고난이도3

행진하고 힘들게 노동하는 익명의 군중/비인간'이라고 묘사했다. 그러면 살아남은 사람들의 대다수는 누구인가? 먼저 친위대의 선택을 받아 권한을 얻어 '특권층'이 된 사람들이 있다. 이 '특권층'은 수감자 중 소수였지만, 가장 높은 생존율을 보여 주었다. 기본적으로 배급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음식이 더 필요했고, 이를 위해 크든 작든 '특권'을 얻어야 했다. 그리고 특권은 그 정의상 특권을 방어하고 보호한다. 예를 들어 막 도착한 '신참'을 기다리는 것은 동료의 위로가 아니라, '특권층'의 고함과 욕설, 그리고 주먹이었다. 그는 '신참'을 길들이려 하고, 자신은 잃었지만 상대는 아직 간직하고 있을 존엄의 불씨를 꺼뜨리고자 했다. 또 다른 방식으로 살아남은 사람들도 있다. '특권층'이 아니면서도 생존 본능에 의지한 채 '정글'에 적응했던 사람들이다. 체면과 양심을 돌보지 않은 그들의 삶은 만인에 맞선 단독 자의 고통스럽고 힘든 투쟁을 함축했고, 따라서 도덕률에 대한 적지 않은 일탈과 타협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회색 지대'는 가해자와 희생자, 주인과 노예가 갈라지면서도 모이는 곳, 우리의 판단을 그 자체로 혼란하게 할 가능성이 농후한 곳이다. 그리하여 '회색 지대'는 이분법적 사고 경향에 문제를 제기한다. 어떤 의미에서는 모호성이 '회색 지대'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모호성의 원천은 다양하다. 먼저 악과 무고함이 뒤섞여 있다. 수감자들은 기본적으로 무고하다. 하지만 그들은 어느 정도 자발적으로 다른 이에게 악을 행할 수 있다. '회색인'의 행위는 무고하면서 무고하지 않다는 역설은 여기서 성립한다. 물론 그가 행하는 악과 나치가

행하는 악은 분명 차원이 다르다. 또 다른 원천은 행위자의 동기에 있다. 예컨대 구역장은 '특권층'으로 일정한 권한을 가진다. 겉으로는 협력하면서도 실은 저항 운동에 참여하는 소수는 이 권한을 이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은 저항 조직을 위해 또 다른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키기도 했다.

그렇다면 무엇이 '회색 지대'를 만들었는가? 첫째, 나치는 인력의 부족 때문에 피억압자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그 협력자들은 한 때 적이었으므로, 이들을 장악하는 최선의 길은 그들을 더럽혀 공모의 유대를 확립하는 것이다. 둘째, 억압이 거셀수록 그만큼 피억압자 사이에서 기꺼이 협력하려는 경향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엄혹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다양한 동기로 '회색인'이 된다. 그런데 '회색 지대'의 이런 모호성은 심각한 혼란과 곡해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가해자와 희생자가 뒤바뀌고 또 뒤섞이는 상황을 보며, 누구에게도 책임의 소재를 묻기 어렵다고 강변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레비가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는 다른 것이다. 그는 인간과 인간성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을 요구한다. 가해자인 나치는 악하며 피해자인 수감자는 무고하다는 단순한 이분법은 아우슈비츠의 기억을 그저 수동적인 것으로, 통념이 된 화석으로만 만들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확실한 답변을 얻기 어려운 문제들을 끊임없이 되묻고 통념을 토대에서부터 문제시하는 데 있다. '괴물'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 보고 얼굴을 돌리지 않을 때, 비로소 사람은 괴물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주간 서성수 고난이도3

22.윗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① 아우슈비츠에서 '신참'에 대한 가혹 행위는 상황에 적응하게 하려는 위악적 행동이었다.

: 2문단에서 알 수 있듯 아우슈비츠에서 신참에 대한 가혹 행위는 그들의 특권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으며 이것은 신참들을 위한 위악적 행위가 아니었다

② 아우슈비츠 수감자 중 일부는 일정한 특권을 가지면서 동시에 저항 운동을 하였다.

: 3문단에서 알 수 있듯 일부 특권층은 이 특권을 저항을 위해 사용했으며 그 과정에서 무고한 다른 이를 희생시키기도 하였다. 이는 모호성을 더욱 키우는 결과를 가져온다

③ 생환자 중 일부는 생존이라는 목적을 위해 비윤리적 행동을 하는 것도 감수하였다.

: 2문단에서 알 수 있듯 정글에 적응했던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도덕적인 일탈과 타협을 했다

④ 생존 투쟁을 포기한 사람들은 침묵하는 익명의 군중이 되어 거의 다 사망하였다.

: 1문단에서 알 수 있듯 침묵하는 익명의 군중들은 대부분 사망하였다

⑤ 아우슈비츠 수감자 중 일부는 무고한 자이면서 가해자이기도 하였다.

: 3문단에서 알 수 있듯 피해자는 기본적으로 무고한 사람이지만 그들은 다른 무고한 사람에게 피해와 폭력을 입히기도 하였다. 이 같은 특성은 그들의 모호함을 심화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23.회색 지대'개념이 가지는 의의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문단에서 알 수 있듯 회색지대의 개념을 통해 우리는 이분법적 구조를 통한 수동적인 기억을 끊임없이 되물고 문 제시하게 된다. 이를 통해 인간의 본성과 괴물 같은 특성을 바라보고 성찰할 수 있게 한다

① 통념에 의문을 제기하여 인간 존재와 본성에 대한 성찰을 유도 한다.

② 억압자와 피억압자의 심리를 규명하여 책임의 소재를 분명하게 한다.

③ 피해자들 간에 공모의 유대가 있음을 드러내어 역사적 진실을 규명한다.

④ 역사적 구체들을 분석하고 정의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기여한다.

⑤ 이분법적 분류를 넘어서게 하여 적극적 협력자에 대한 능동적 단죄를 요청한다.

24. <보기>를 바탕으로 레비의 글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 레비의 글은 아우슈비츠 문제의 본질을 왜곡했다는 이유로 이탈리아의 여러 출판사에서 출판이 거부되었다.

◦ 레비의 글을 읽은 학생들에게서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은 "당신은 독일인들을 용서했나요?"였다.

◦ 아우슈비츠 생존자 중 하나인 비젤은 레비의 글에 대해 "레비는 생존자들에게 너무 많은 죄

바른 국어 다른 결과

주간 서성수 고난이도3

의식을 강요하고 있다.”라고 평했다.

보기 독해:

피해자에게도 가해자의 속성이 있음을 밝힘으로써 모호성이라는 개념을 만들었고 이것은 피해자에게 고통으로 다가왔다

① 수용소 단위에서의 가혹 행위에만 집중함으로써 역사를 거시적으로 보지 못하게 한다.

② 극한 상황에서의 일상에만 집중하게 함으로써 일상사가 갖는 본연의 의미를 왜곡한다.

③ 다층적 차원에서 수감자들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유보하게 한다.

④ 피해자들 내부의 관계에만 주목하게 하여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부차적 문제로 만든다.

⑤ 관리자와 수감자의 관계로만 접근하여 유태인에 대한 유럽의 민족 감정 문제를 외면하게 한다.

[25-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예술사를 양식의 특수하고 자족적인 역사가 아니라 거시적 차원의 보편적 정신사 및 그 발전 법칙에 의거한다고 본 점에서 헤겔의 예술론은 구체적 작품들에 대한 풍부하고 수준 높은 진술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전형적인 철학적 미학에 속한다. 그는 예술사를 '상징적'고전적'낭만적'이라고 불리는 세 단계로 구분한다. 유의할 것은 이 단어들이 특정 예술 유파를 일

컸는 일반적 용법과는 사뭇 다르게 사용된다는 점이다. 즉 이 세 용어는 지역 개념을 수반하는 문명사적 개념으로서 일차적으로는 태고의 오리엔트, 고대 그리스, 중세부터의 유럽에 각각 대응하며, 좀 더 심층적인 차원에서는 '자연 종교', '예술 종교', '계시 종교'라는 종교의 유형적 단계에 각각 대응한다. 나아가 이러한 대응관계의 단계적 설정은 신이라는 '내용'과 그것의 외적 구현인 '형식'의 일치 정도에 의거하며, 가장 근본적으로는 순수한 개념적 사유를 향해 점증적으로 발전하는 지성 일반의 발전 법칙에 의거한다. 게다가 이 세 범주는 장르들에도 적용되어, 첫째 건축, 둘째 조각, 셋째 회화. 음악.시문학이 차례로 각 단계에 대응한다. 장르론과 결합된 예술사론을 통해 헤겔은 역사의 특정 단계에 여러 장르가 공존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각 단계에 대응하는 전형적 장르는 특정 장르로 한정한다.

〈POINT1 첫 문단 독해〉

1) 개념 정리

예술사를 A: 상징적// B: 고전적// C: 낭만적 (비교 대조)

A': 태고의 오리엔트, 자연 종교, 건축

B': 고대 그리스, 예술 종교, 조각

C': 중세의 유럽, 계시 종교, 회화, 음악, 시문학

2) 첫 문단 이해

예술사를 보편적 정신 법칙과 그 발전 법칙에 의거한다고 보기에 전형적인 철학적 미학에 속한다

상징적, 고전적, 낭만적으로 구분

지역 문명 개념과 연결되면 태고의 오리엔트, 고대 그리스, 중세의 유럽

자연 종교, 예술 종교, 계시 종교라는 종교 유형과 대응

바른 국어 다른 결과

주간 서성수 고난이도3

내용과 형식과 일치 정도에서 차이가 나며 궁극적으로
는 순수한 개념적 사유를 향해 발전

건축, 조각, 회화 음악 시문학이 차례로 대응

장르의 공존은 인정한다

3) 예측 하기

사용된 구조: A-A'// 시간의 흐름

우선 상징적, 고전적, 낭만적이라는 단계를 설정하고 그와 연결되는 다양한 내용들을 구체화 했지만 구체적으로 상징적 단계가 무엇인지, 고전적 단계가 무엇인지, 낭만적 단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따라서 뒤에서는 이를 충분하게 구체화해야 한다.

특히 상징적 고전적 낭만적 단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내용과 형식의 대응 정도가 활용되어 설명할 수 있으며 이후의 시간적 흐름이 제시될 수 있다

상징적, 고전적, 낭만적 단계에 대한 구체화

- 상징적 고전적 낭만적 단계가 각각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음
- 특히 각각 지역 개념, 종교 개념, 장르 개념을 활용
- 내용과 형식의 일치 정도를 이야기
- 이후의 시간적 흐름에 따른 변화 이야기 가능

'상징적'단계는 인간 정신이 아직 절대자를 어떤 구체적 실체로서 인식하지 못한 채, 절대적인 '무엇'을 향한 막연한 욕구만 지닐 뿐인 상태를 가리킨다. 오리엔트 자연 종교로 대표되는 이 단계에는 '신적인 것의 구체적 상을 찾아 헤매'만 있을 뿐이다. 감관을 압도하는 거대 구조물이 건립되지만 그것은 그저 신을 위한 공간의 구실만 하지, 정작 신이 놓일 자리에는 신의 특정한 덕목(예컨대 '강함')을 어렵게 표현할 수 있는 자연물(예컨대 사자)의 형상이 대신 놓인다. 미약한 내용을 거대한 형식이 압도함으로써 미의 실현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 이 단계의 전형적 장르는 신전으로 대표되는 건축이다.

'고전적' 단계에서는 내용과 형식의 이러한 불일치가 극복된다. 고대 그리스 인들은 신들을 근본적으로 인간적 특질을 지닌 존재로 분명하게 인식했기 때문에, 이제 절대자는 어떤 생소한 자연물이 아니라 삼차원적 인체가 그대로 형상화되는 방식으로 제시되며, 이 단계를 대표하는 장르는 조각이다. 내용과 형식의 완전한 일치를 이룸으로써 그리스의 조각은 더 이상 재연될 수 없는 미의 극치로 평가된다. 나아가 예술 그 자체가 신성의 직접적 구현이기 때문에 이 단계의 예술은 그 자체가 이미 종교이며, 이에 따라 예술 종교라고 불린다.

그런데 인간의 지성은 이러한 미적 정점에 안주하지 않는다. 즉 지성은 절대자를 인간의 신체를 지닌 것으로 믿는 단계를 넘어 순수한 정신적 실체로 여기는 계시 종교로 나아가는데, 이로써 정신적 내면성이 감각적 외면성을 압도하는 '낭만적'단계가 도래한다. 그리고 조각의 삼차원성을 탈피한 회화를 시작으로 음악과 시문학이 차례로 대표적 장르가 됨으로써, 예술 또한 감각적 요소가 아닌 정신적 요소에 의거하는 방향으로 발전한다. 이 때문에 내용과 형식의 부조화가 다시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이 단계는 상징적 단계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상징적 단계에서는 제대로 된 정신적 내용이 아직 형성조차 되지 않았지만, 낭만적 단계에서는 감각적 형식으로는 담을 수 없을 정도의 고차적 내용이 지배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 단계는 새로운 더 높은 단계가 존재하지 않는, 정신과 역사의 최종 지점이기 때문에, 이후에 벌어지는 국면들은 모두 '낭만적'이라고 불릴

바른 국어 다른 결과

주간 서성수 고난이도3

수 있다.

주목할 것은 헤겔이 순수 미학적 차원에서는 출발-완성-하강의 순서로 진행되는 이행 모델을, 그리고 근본적인 정신사적 차원에서는 출발-상승-완성의 순서로 진행되는 이행 모델을 따른다는 점이다. 즉 세 단계의 순서적 배열은 전자의 차원에서는 예술미의 정점이 두 번째 단계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후자의 차원에서는 지성의 정점이 세 번째 단계에서 이루어지도록 구성된다. 나아가 일견 불일치를 보일 법한 이 두 모델을 절묘하게 조화시킨 그의 이론은 이중적 기능을 수행한다. 즉 정신사적 차원에서의 정점이 예술미의 차원에서는 오히려 퇴보를 의미하도록 구성된 이 이론은 한편으로는 '추(醜)'도 새로운 미적 가치로 인정되기 시작한 당시의 상황은 물론, '개념적'이라고까지 일컬어질 만큼 예술의 지성화가 진행된 오늘날의 상황까지 예견하여 설명할 수 있는 포섭력을 가지며, 다른 한편으로는 절대자의 제시라는 과제를 예술이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대 그리스로 한정하고 철학이라는 최고의 지적 영역에 그 과제를 이관시키는, 곧 '예술의 종언' 명제라 불리는 미학적 결론에 이른다.

25. 윗글에 제시된 헤겔의 입장에 부합하는 것은?

① 예술은 내용과 형식의 합일이라는 구체적 방식으로 구현되므로, 작품의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 개념에 앞선 개별 작품의 파악이다.

: 1문단에서 알 수 있듯 예술은 내용과 형식의 일치 정도 등에 의해서 변화하며 반드시 합을 통해서만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헤겔은 개별적인 대상에도 집중했지만 근본적으로는 보편적인 정신 법칙과 발전 법칙에 집중했다

② 예술의 단계적 변천은 인간 정신의 보편적 발전에 의해 추동되므로, 작품들의 미적 수준의 차이는 그것들의 장르적 상이성과 무관하다.

: 1문단에서 알 수 있듯 예술의 단계적 법칙은 보편적 발전 법칙에 의해 추동되며 이 같은 차이는 장르적 상이성과도 연결된다

③ 문명의 모든 단계적 이행은 인간 정신의 발전 논리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예술의 역사는 다른 영역의 역사와 연계되어 기술되어야 한다.

: 1문단에서 알 수 있듯 문명의 단계적 이행과 발전은 인간 정신의 보편 법칙과 발전 법칙에 의한 것이며 이로 인해 예술사는 지역과 문명사 같은 다른 영역의 역사와 연계되어 기술된다.

④ 예술은 인간 정신의 심층적 차원을 표출한 것이므로, 예술미의 성취 여부는 형식이 아니라 내용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

: 1문단에서 알 수 있듯 예술은 인간 정신의 보편법칙에 의거한 것이며 이 예술미의 성취 여부는 내용과 형식의 일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⑤ 예술 양식 변화의 근원은 인간 내면의 보편적인 정신적 욕구에 있으므로, 모든 시대의 작품들은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

: 작품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따로 하고 있지는 않기에 거짓이다

바른 국어 다른 결과

주간 서성수 고난이도3

26. 윗글에 따라 각 시대의 장르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 상징적// B: 고전적// C: 낭만적

A': 태고의 오리엔트, 자연 종교, 건축

B': 고대 그리스, 예술 종교, 조각

C': 중세의 유럽, 계시 종교, 회화, 음악, 시문학

① 태고 오리엔트의 조각은 상징적 단계의 전형적인 예술이 아니다.

② 고대 그리스의 서사시는 고전적 단계의 전형적인 예술이 아니다.

③ 중세의 기독교 회화는 낭만적 단계의 전형적인 예술이 아니다.

④ 근대의 고전주의 음악은 낭만적 단계의 전형적인 예술이다.

⑤ 현대의 건축은 낭만적 단계의 전형적인 예술이 아니다.

27.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으로 적절한 것은?

① 가장 앞 단계의 예술이 가장 아름다운 예술이다.

: 2&3문단에서 알 수 있듯 미의 극치로 평가 받는 예술은 고전적 단계 즉 두 번째 단계의 예술이다

② 가장 뒷단계의 예술이 가장 아름다운 예술이다.

: 2&3&4문단에서 알 수 있듯 미의 극치로 평가 받는 예술은 고전적 단계 즉 두 번째 단계의 예술이다

③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가장 지성적인 예술은 없다.

: 2&3&4문단에서 알 수 있듯 가장 아름다운 예술은 고전적 단계이고 가장 지성적인 예술은 낭만적 단계로 이 둘은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기에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지성적인 예술은 없다고 할 수 있다

④ 가장 비지성적인 예술이 가장 아름다운 예술이다.

: 2&3&4문단에서 알 수 있듯 가장 비지성적인 예술은 상징적 단계이며 이는 가장 아름다운 예술이 아니다

⑤ 가장 추한 예술이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예술이다.

: 4&5문단에서 알 수 있듯 추는 낭만적 시대에서 미의 새로운 미적 기준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추의 정도가 강할수록 가장 아름다운 예술이라고 할 수는 없다

28. 윗글에 나타난 헤겔의 예술론을 평가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개념에 주로 의존하는 전형적인 철학적 미학이기 때문에 논증적 수준은 높지만 실질적 사례를 언급한 경우는 많지 않다.

: 1문단에서 알 수 있듯 헤겔의 예술론은 철학적 미학론이지만 실질적 사례를 많이 언급했다는 특징이 있다

② 당대까지의 예술 현상에 대한 제한된 경험에 기초하기 때문에 이후 시대의 예술적 상황에 대해서는 설명력을 결여하고 있다.

: 4문단에서 알 수 있듯 이후 예술에 관해서 낭만적인 예술이 지속된다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설명력을 유지하고 있다

③ 정신사적 차원에서의 설명과 종교사적 차원

바른 국어 다른 결과

주간 서성수 고난이도3

에서의 설명을 분리함으로써 양자 간에 발생한 결론상의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였다.	123 425
: 1문단에서 알 수 있듯 정신사적 차원의 설명과 종교사적 차원의 설명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구조로 설명하고 있 다	511 353
④ 예술사의 시대 구분과 각 예술 장르에 대한 설명이 서로 무관한 논리와 개념에 의거하기 때문에 이론의 전체적 정합성이 떨어진다.	434 355 133
: 1문단에서 알 수 있듯 예술사의 시대 구분과 각 예술 장 르에 대한 설명이 내용과 형식의 일치 정도, 그리고 발전 법칙을 활용해서 서로 연결되고 있다	114 3335
⑤ 당대 유럽 이외의 문화를 상대적으로 미성 숙한 지성적 단계에 위치시킴으로써 이론적으 로 근대 서구의 자기 우월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5문단에서 알 수 있듯 고대 그리스와 중세 유럽을 중심 으로 유럽 중심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중세 유럽을 지성사적 측면에서 정점으로 놓음으로 써 근대 서구의 자기 우월적 태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 다	